

日本教科書의 韓國史 敘述

— 高校用 日本史・世界史를 中心으로 —

權 仁 赫

〈目 次〉

- | | |
|----------------|---------------|
| I 序 言 | 3. 朝鮮의 外交와 文化 |
| II 古代史에 關한 敘述 | 4. 異民族과의 抗爭 |
| 1. 韓國의 先史文化 | 5. 朝鮮後期の 世景향 |
| 2. 漢四郡과 任那日本府 | IV 近代史에 關한 敘述 |
| 3. 三國의 文化 | 1. 開港과 政界動向 |
| 4. 統一新羅와 渤海 | 2. 抗日救國運動의 展開 |
| III 中世史에 關한 記述 | 3. 日帝下의 獨立願望 |
| 1. 高麗의 社會와 文化 | V 結 語 |
| 2. 北方民族과의 抗爭 | |

I 序 言

근래 韓國史學의 成長過程과 方向을 論하는 과정에서 日帝의 植民主義 史觀이 자주 擧論되고 있다. 이와같은 學界의 動向은 植民主義 史觀에 대한 구체적인 本質究明과 現 日人學者의 對韓國史 認識에 이르기까지 그 研究의 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¹⁾

그러나 國內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現 日本에서는 일제시의 植民主義 史觀이 계속 답습되는 실정이라 한다. 즉 종래의 한국사 전공자인 三品彰英은 《朝鮮史 概說》을 다시 他律性 理論을 제강조하고 있고 末松保和는 《任那興亡史》를 써 한반도 남단의 任那日本府를 云謂하며 四方博은 《舊來의 朝鮮社會의 歷史的 性格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停滯性 理論을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²⁾ 이렇게 日本 既成世代의 韓國史 認識이 종전의 植民主義

1) 李基白, 1971. 〈植民主義의 韓國史觀 批判〉《民族과 歷史》(一潮閣)

金哲瓊, 1970. 〈韓國史學의 몇 가지 問題〉《文學과 知性》1-1

金容燮, 1966.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 敘述〉《歷史學報》31

李萬烈, 1981.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文學과 知性社)

2) 李基白, 1978. 〈近代韓國史學에 대한 研究와 反省〉《韓國史學의 方向》(一潮閣)

史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旗田巍와 같은 일부 소장학자들 간에는 韓國史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必要性에서 日帝時 行해진 韓國史研究에 대한 전반적인 再檢討와 自己批判을 가하고 있다³⁾ 그렇지만 一部 學者들에 의해 추진되는 이러한 反省의 氣運은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본격적인 植民主義的 體質 극복 노력은 將來에 기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日本人 意識 속에 韓國史에 대한 인식이 誤導되고 歪曲되어 있는 사실도 바로 이와 같은 日本 學界의 동향과 脈絡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자라나는 세대들에까지 植民主義的 韓國史觀이 注入되고 있다는 사실⁴⁾은 그들 教科書의 韓國史像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本稿는 既往의 研究成果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高校用 日本史와 世界史를 대상으로 그들의 韓國史 叙述傾向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자 한다.

미리 前提하고 싶은 것은 저들의 日本史·世界史 教科書가 韓國史에 대한 全的인 내용을 담고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對韓國史 認識을 全面的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斷片的으로 나타나는 韓國史 內容이라도 그들의 對韓國史 認識 態度가 內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教科書를 통한 그들의 對韓國史 認識 傾向을 살피는 것도 결코 無意味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본 논저의 전개가 概略的이고 基本的인 性質의 批判만 되풀이했음을 첨가해 둔다.

《檢討될 高校用 日本史·世界史》

1. 永原慶二 外 2名, 1979. 《高校日本史(改訂版)》(學校圖書株式會社)
2. 時野谷勝 外 3名, 1979. 《日本史(改訂版)》(實教出版株式會社)
3. 小葉田淳 外 8名, 1979. 《日本史(新訂版)》(清水書院)
4. 竹內理三 外 1名, 1979. 《精隨日本史》(自由書房)
5. 井上光貞 外 9名, 1979. 《標準日本社》(山川出版社)
6. 井上光貞 外 9名, 1979. 《詳說日本史(改訂版)》(山川出版社)
7. 安田元久 外 7名, 1979. 《新日本史(初訂版)》(帝國書院)
8. 安田元久 外 4名, 1979. 《高等日本史(最新版)》(帝國書院)
9. 稻垣泰彥 外 3名, 1979. 《日本史》(三省堂)
10. 門脇禎二 外 5名, 1979. 《高校日本史》(三省堂)
11. 鈴木成高 外 5名, 1979. 《新世界史(三訂版)》(帝國書院)
12. 林川堅太郎 外 3名, 1979. 《詳說世界史(改訂版)》(山川出版社)

3) 旗田巍, 1965. <日本人の朝鮮觀>《アジア・アフリカ講座 3, 日本と朝鮮》

4) 李元淳, 1976. <日本史教育에 있어서의 韓國史教育의 問題點>《韓國學報》4

13. 神田信夫 外 9名, 1979. 《世界의歷史(改訂版)》(山川出版社)
14. 鈴木智夫 外 1名, 1979. 《高校世界史》(三省堂)
15. 中屋健一 外 2名, 1979. 《世界史(三訂版)》(三省堂)
16. 土井正興 外 3名, 1979. 《新世界史(三訂版)》(三省堂)
17. 吉田悟郎 外 6名, 1979. 《高校世界史》(實教出版株式會社)
18. 田中正義 外 5名, 1979. 《改訂世界史》(東京書籍株式會社)
19. 吉岡力 外 4名, 1979. 《高校世界史 再訂版》(高校圖書株式會社)
20. 江口朴郎 外 9名, 1979. 《改訂世界史》(秀英出版株式會社)
21. 村上智勇 外 6名, 1979. 《世界史(新訂版)》(清水書院)
22. 三上次男 外 7名, 1979. 《改訂新版 世界史》(中教出版株式會社)

II 古代史⁵⁾에 關한 敘述

韓國 古代史에 關한 日人學者들의 관심은 그들의 古代史 體系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났
다. 日本 古代史에 대한 整理는 바로 韓國 古代史의 理解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古代
韓·日關係史에 보다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日帝의 韓半島 侵略을 歷史的으로 合理化하는 과정에서 많은 모순을 내포하기 시작
했다. 즉 古朝鮮의 存在를 부정하고 外勢의 壓力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韓半島의 북쪽은 中
國·塞外民族의 支配를 남쪽은 日本勢의 進出을 한국사의 序頭로 장식하여 韓民族의 自主的 發
展을 부인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학계의 韓國 原始·古代社會에 대한 꾸준한 研究활동은 日帝의 植民主義 史觀을
批劄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 舊石器·靑銅器文化의 實體가 드러
나지고 韓民族의 內在的 發展에 關한 구체적 제 양상이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現 日本史·世界史 教科書에는 지난 날의 그릇된 한국사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한국사에 대한 참된 理解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 韓國의 先史文化⁶⁾

先史時代에 關한 諸般 知識은 1960年代 以後 국내 관련학자들의 왕성한 研究활동에 힘입어

5) 本稿의 時代區分은 內容展開의 편의상 臨時的으로 設定한 것이다.

6) 以下 各項의 題名은 筆者의 主觀에 의해 分類된 것이다.

급속한 팽창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石器·青銅器·鐵器時代의 繼起的 發展이 確證되고 各 시대의 編年設定과 各 문화단계의 양상이 어느정도 把握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거의 모든 日本 教科書에서는 韓國 先史文化에 관한 一沫의 기술도 없다. 비록 日本 史·世界史라는 각 과목의 특성으로 인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日本의 先史文化가 한국의 그것에 基盤을 두고있는 이상 韓國 先史文化에 관한 내용 서술이 간략하게나마 表現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서술 내용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조선남부에 분포된 支石墓가 北九州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또 山口縣 土井原의 彌生文化 前期 集團墓地에서는 朝鮮人에 가까운 人骨이 발견되고 있다. 조선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선진문화를 전하는 한편 北九州에 彌生式 土器를 사용하기 시작한 最末期의 繩文時代人은 이주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다.⁷⁾

실제 彌生人의 골격은 그 身長과 頭骨에 있어 繩文人·南九州人과 구별되며 현 한국인의 골격과 아주 類似하다고 한다. 그래서 彌生文化의 담당자가 韓人 移住者가 아닐까 하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종래 論難의 대상이었던 稻作技術 問題도 한반도에서의 전파가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繩文時代 末期와 彌生時代 初期에 쌀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또 거기에 수반된 文化가 한반도의 문화란 점에서 더욱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⁸⁾

이와같이 學界의 動向을 反映한 교과서는

일본에 전해진 農業은 중국의 중남부 산둥반도와 조선남부에서 행해진 水稻農業이었다. 이것을 직접 일본에 전한 것은 조선남부로부터 이주해 온 자들로 생각된다. 그것은 조선반도 남부와 같은 형식의 支石墓나 朝鮮製의 青銅武器가 北九州에서 간혹 발견되기 때문이다.⁹⁾

라고 叙述하여 그들의 彌生文化 源流를 한반도에 設定하고 있는 것이다.

北九州에서 출토되는 B. C3세기 경의 彌生土器가 한국의 無文土器와 같은 계통의 것이며 그들의 原始日本語도 伽耶語에 가깝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고 보면 그들의 彌生文化는 분명히 韓半島 影響下에서 성장된 農耕文化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2. 漢四郡과 任那日本府

몇년 전만 하더라도 日本史 教科書의 대부분은 한국사의 시작을 漢武帝의 東征과 漢四郡 設

7) 永原慶二, 1979. 《高校日本史(改訂版)》

8) 李萬烈, 1974. 〈古代 韓·日關係論의 檢討〉《文學과知性》5-2

9) 稻垣泰彦, 1979. 《日本史》

10) 李萬烈, 《前掲書》

置로 記述하고 일부 世界史 教科書만이 衛滿의 찬탈과 古朝鮮의 存在에 대해 언급한 것 같다.¹¹⁾

今日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경향이 多樣化되어 日本史 경우에는 三國의 形成·對立 또는 漢四郡 設置, 世界史의 경우엔 일부만 箕子·衛滿을 그 외는 한4군에서 한국사 내용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世界史 경우와 같이 箕子·衛滿을 韓國史 첫머리로 취급한다 해도 그 서술의 경향은 하나로 集編되게 된다. 즉 韓民族의 歷史는 中國의 植民地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에는 中國 戰國時代에 한반도로 이주한 중국인 箕子가 朝鮮을 세웠다 한다. 이어 燕의 망명자인 衛滿이 箕子朝鮮을 滅하고 평양을 중심으로 衛氏朝鮮을 세웠다. 이것은 B.C.2세기 말에 漢의 武帝에게 멸망되고 樂浪以下 四郡이 중국 동북부에서 半島 서북부에 걸쳐 設置되었다. 낙랑군은 4세기 초까지 존속하였다. 그동안 中國文化가 과급 침투하여 現地人의 자립을 촉진했다.¹²⁾

이러한 記述은 韓民族의 歷史가 外勢의 支配·教化에서 展開된다고 하는 所謂 한민족의 後進性과 他律性을 강조하는 日帝 官學者들의 論旨과 동일한 것이다.

近來 국내 학계에서는 이 방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여러 斬新한 見解가 續出되었다. 특히 종래의 제한된 文獻研究 中心에서 文化人類學, 考古學 등 여러 인접학문의 도움을 얻어 당시 시대상에 대한 綜合的인 照明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箕子·衛滿의 存在가 韓民族의 한 구성원이었음이 밝혀지고 아울러 당시 社會·文化相과 住民構成 나아가 韓民族의 形成·移動過程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이해되게 되었다.¹³⁾

한편 日本史·世界史 教科書는 任那日本府에 대해 모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내용을 紹介하면

大和朝廷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걸쳐 진보된 生産技術이나 鐵資源을 얻기 위해 朝鮮半島에 진출하여 아직도 小國群의 상대였던 반도 남부의 弁韓 諸國을 勢力下에 넣었다. 이것이 任那이다. 大和朝廷은 또한 百濟·新羅를 누르고 高句麗와도 싸웠다. 그 간의 사정은 高句麗 好太玉碑에 기록되어 있다.¹⁴⁾

라고 하여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걸쳐 日本勢力이 한반도 남단을 지배하에 넣고 백제·신라세력을 견제하며 북방의 고구려세력과도 抗爭했다는 것이다.

11) 李元淳, 《前揭書》.

12) 神田信夫, 1979. 《世界の歴史(改訂版)》

13) 金貞培, 1980. 〈古朝鮮研究의 새로운 觀點〉〈韓國古代史論의 新潮流〉(高大出版部)

金貞培,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高大出版部)

14) 井上光貞, 1979. 《詳說日本史(改訂版)》

이러한 任那日本府의 設定과 強調은 日帝의 한반도 침략을 正當化하기 위해 조작한 虛構의 産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國內史料에 나타나는 任那라는 명칭은 廣開土王碑와 三國史記의 強首傳, 그리고 新羅의 眞鏡大師塔碑가 고작이며 中國史料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日本側 史料, 특히 日本書紀에 등에 任那日本府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日本書紀 자체가 심한 潤色과 作爲가 가해진 만큼 크게 신빙할 것이 못된다.¹⁵⁾ 더우기 國內史料에 나오는 그 명칭은 일본세력의 한반도 진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日本學者들은 廣開土王碑文을 任那日本府의 實在을 확인해 주는 좋은 資料인 양 착각하여 각 교과서에까지 그 내용을 記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보면

(광개토왕비)好太玉 一代의 사업을 기록한 비석. 당시의 중국 동북부나 조선반도의 정세를 알기 위해 貴重한 史料이다. 「百殘(濟) 新羅는 舊是屬民으로 由來朝貢했다. 그런데 倭가 辛卯年부터 바다를 건너 百殘□□□羅를 격파하여 臣民으로 삼았다」라고 적혀 있어 일본의 반도진출을 전해주고 있다.¹⁶⁾

라고 하여 종래 日本史家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碑文에 대한 解釋은 그 간 鄭寅普, 朴時亨, 金錫亨, 鄭斗熙, 金永萬 등 여러 학자에 의해 달리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고 碑文 自體가 日帝 軍府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논문¹⁷⁾이 나오오부터는 비문해석을 떠나서 任那日本府 存在의 否定은 물론 日本 古代史의 體系마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일부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신중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해석에 잘못이 있어 백제나 신라를 복속케 한 것은 倭가 아니라 高句麗라는 說, 그리고 碑文이 明治時代 일본인 손에 改變되었다는 문제 제기 등 그에 대한 反論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¹⁸⁾

실제 4~5세기 경이면 韓半島에는 騎馬戰鬪가 한창이고 戰爭에 수만명이 동원되었는데 아직 統一國家 段階에도 이르지 못한 大和政權이 한반도에 그런 規模의 전투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기 전후해서 쓰이기 시작한 日本이란 칭호가 수세기 앞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은 더욱 理解가 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任那日本府의 존재는 그것을 뒷받침할 史料가 없는 한 正當化될 수 없는 것이다.

15) 李萬烈, 《前掲書》

16) 井上光貞, 1979. 《標準日本史》

17)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吉川弘文館)

18) 時野谷勝, 1979. 《日本史(改訂版)》

3. 三國의 文化

일본의 古代文化는 일부 교과서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韓半島의 影響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4세기 말경 조선으로부터의 渡來人이 증가하여 機織, 金工, 製陶, 建築, 土木工事 등 진보된 기술이 전해져 산업과 문화의 발달을 도왔다. 또 文字의 지식도 渡來人에 의하여 유포되었고 儒敎도 이 시대 百濟로부터 전해진 것이라 한다. 좀 뒤에는 佛敎도 전해졌다. 大和政權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渡來人을 우대하여 氏姓을 하사하고 大和政權의 文化와 經濟力을 높이는데 이용했다. 특히 秦氏와 漢氏와 같이 文筆에 우수한 자들은 財政과 記錄을 담당시켰다. 각지서 토지개간이 진행되고 屯倉이나 田莊이 증설된 것도 渡來人에 힘입은 바 크다.¹⁹⁾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韓半島에서 전해진 古代文化를 韓民族의 文化가 아닌 大陸文化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한반도는 대륙문화를 日本에 전해주는 橋梁으로서, 한민족은 대륙문화를 自己化없이 그대로 전파해주는 單純機能만을 담당했다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類의 說明은 〈中國 南朝와의 교섭이 성해 짐에 따라……古代文化는 면목을 일신하게 된다〉 〈大陸의 진보된 鐵製農具와 농업, 토목기술의 전래로〉 〈고구려에 멸망한 樂浪郡 遺民 다수가 우리나라에 망명한 바 있었다.……그 子孫들은 文筆이나 軍事, 產業에 공헌했다〉등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의 古代文化는 그들의 표현처럼 中國의 文化를 모방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北方系統의 文化까지도 다양하게 收容하여 獨自의인 文化를 創出한 데에 그 特色이 있는 것이다. 중국이 五胡十六國으로 그 뒤에는 南北朝로 分裂되어 있을 적에 北方의 高句麗는 西域系統의 文化와 北中國文化를 흡수·정리하여 韓國 古代文化의 基準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文化는 그 뒤 百濟·新羅의 文化基盤으로 作用하였으며 兩國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 양상으로 전개된다.²⁰⁾

이러한 三國의 文化는 三國人의 日本 進出과 더불어 日本列島 到處에 전파되게 된다. 이는 一時的이고 一律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三國文化의 發展程度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多樣하게 파급되었다. 이 波及過程이 바로 日本 古代文化의 성장과정이라 할 수 있다.

4. 統一新羅와 渤海

신라의 三國統一과 渤海에 관해서는 世界史 教科書가 거의 취급하고 있는데 비해 日本史 教

19) 同上.

20) 金哲讓, 1976. 〈民族文化의 傳統〉《韓國文化史論》(知識產業社)

科書는 극히 일부만이 다루고 있다.

世界史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동북아시아의 새 秩序樹立이란 관점에서 양자를 공히 다루고 있는 것 같고 日本史 경우에는 韓半島에 設定해 놓은 任那勢力의 철수를 三國統一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渤海에 관해서는 그들에 使臣을 파견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記述하고 있다.

그러나 世界史나 日本史나 신라의 三國統一을 기술한 대부분의 교과서는 唐의-군사원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조선반도에서는 4세기 이래 新羅·百濟·高句麗의 三國이 대립하였고 7세기 후반에 新羅가 唐의 도움을 얻어 百濟·高句麗를 滅하고 半島를 統一했다.²¹⁾

이것은 韓國史에서의 韓民族 主体性を 배제하고 外勢를 강조하는 日帝 御用學者들의 他律性 理論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비록 羅·唐聯合軍에 의해 百濟·고구려가 멸망되긴 했지만 그 후 신라는 舉族的인 民族力量을 바탕으로 唐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꺾고 그들을 한반도 북쪽으로 驅逐했던 것이다.

渤海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서가 통구스계통의 국가라는 表現을 써서 韓民族과는 無關한 나라로 誤導하고 있다.

唐의 統一과 文化의 발전은 주위의 여러 민족에게 자극을 주었다. 조선서는 新羅가 완전히 獨立하고 만주서는 통구스계의 渤海國이 일어났다.²²⁾

이와같은 내용 서술은 일부 교과서에 局限된 것이긴 하지만 高句麗가 통구스계열의 국가라는 다른 교과서의 내용도 있고 보면 韓民族에 대한 그들의 認識이 매우 막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통구스족이란 것은 中國 北方에 거주하는 塞外民族에 대한 總稱으로 어느 한 민족에 대한 構体的 名稱은 아닌 것이다. 韓民族은 그 중에서도 貊族과 韓族이 根幹을 이루어 형성된 민족으로 滿州·韓半島 等地에서 활동한 無文土器 文化의 主人公인 것이다. 이들은 후에 각 지역에 따라 여러국가를 세우게 된다.

Ⅱ 中世史에 關한 記述

日人學者 今西龍가 大學에서 강의한 高麗史概說에 의하면 高麗建國부터 蒙古侵入 前까지의

21) 村上智勇, 1979. 《世界史(新訂版)》

22) 鈴木成高, 1979. 《新世界史(三訂版)》

313년간의 내용은 겨우 21페이지인데 비해서 蒙古侵入 後 恭愍王 即位年까지의 122년간의 내용은 22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²³⁾ 이와같은 사실은 한 개인의 學問性向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日帝 官學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反映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實際 韓國中世史에 대한 그들의 敘述傾向은 주로 對外關係史에 置重되어 한민족의 內的 成長過程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日帝 官學者의 學問性向은 今日에도 계속 답습되어서 日本 教科書 內的 韓國中世史 內容이 外侵事實로만 메꾸어지고 있다.

1. 高麗의 社會와 文化

고려의 社會, 制度, 文化에 대한 記述은 世界史 教科書에서만 나타난다. 그 취급정도는 교과과서마다 약간씩 差異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簡略히 처리하고 있다. 그 중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비교적 詳細히 言及한 것을 인용해 본다면

조선반도에서는 10세기 전반에 王建이 高麗王國을 세우고 新羅에 이어 半島를 지배했다. 高麗는 開城에 도읍하고 唐制度를 받아들여 官僚體制를 정비했다. 또 高麗에서는 佛敎나 儒敎가 盛하여 佛典·經書 등이 인쇄되었다. 官吏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봉급을 지급받고 차차 특권화하여 族黨을 이루니 정권투쟁이 계속되었다. 12세기 이후 族黨 간의 싸움으로 政變, 反亂이 일어나 武人의 專橫을 이끌었다.²⁴⁾

라고 하여 高麗 社會·文化에 대한 전반적인 說明을 하고 있다. 그러나 〈唐制度를 받아들여 官僚體制를 정비했다〉라던가, 또는 다른 교과서에 보이는 바처럼 〈中國 王朝와의 교류에 힘써 中國風의 判別계도를 정비했다〉 〈中國文化의 영향을 받았으며〉라고 표현한 文脈은 고려 社會·문화의 獨自性을 은연중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 影響이라는 단서를 통해 高麗의 制度·文化가 중국의 그것을 그대로 模倣한 것처럼 유도하여 韓民族의 外來文物 消化能力과 나아가서 새로운 文物 創造라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과서에서는 高麗靑磁, 金屬活字 등을 열거하여 高麗文化의 獨創성과 優秀性을 간략하게나마 기록한 것도 있다.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에 걸쳐 王權은 안정되고 高麗文化는 꽃피었다. 독특한 技法을 지닌 高麗靑磁, 靑磁가 만들어지고 金屬活字도 實用되었다. 불교도 건성기를 만나 宋·遼·日本에도 佛典을 구하고 高麗版 大藏經 6千餘卷, 讀藏經 4千餘卷을 간행하였다. 現存하는 朝鮮 最古의 史書 三國史記도 만들어 졌다.²⁵⁾

23) 金哲揆, 1972. 〈韓國의 歷史學〉《韓國學》(玄岩社)

24) 村上智勇, 《前掲書》

25) 吉田悟郎, 1979. 《高校世界史》

2. 北方民族과의 抗爭

고려왕조가 신라를 繼承하여 한반도의 주인공이 된 것은 단순한 外形의 變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內部的인 質的變化를 수반한 時代的 轉換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高句麗를 계승했다는 民族自尊意識은 영토수복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現實化되었고 이러한 行動은 契丹族을 자극하기에 充分했던 것이다. 3차에 걸쳐 전개된 契丹族의 侵入은 그 때마다 高麗人의 굳센 저항에 逢着하여 도리어 압록강 이남의 땅을 高麗領土로 편입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또한 高麗 中期에 展開된 咸興平野의 女眞族 消蕩과 麗末 30여년간에 걸친 對蒙抗爭은 한민족의 自主精神을 나타내주는 좋은 證據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世界史 教科書를 보면

對外的으로는 宋에 服屬하고 遼·金이 일어나자 그 支配를 받았고 13세기 후반에는 蒙古의 침략을 받아 그 屬國이 되었다.²⁶⁾

와 같이 표현하여 高麗王朝의 對外關係가 外勢에 의해 줄곧 간섭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麗末에 극성을 부리는 倭寇의 來侵에 대해서는 麗·元聯合軍의 日本征伐에 대한 反射的 行爲로 正當化시키고 있는데

13세기에는 蒙古의 침략을 받고 쿠비라이 때 완전히 屈服했다. 그 후 屬國으로 元의 官吏가 駐在하여 內政에 간섭하고 國王廢立에 관계하는 등 압박이 심했다. 元의 日本遠征에는 그 先導를 맡았다 패하고 그후 倭寇의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²⁷⁾

이는 倭寇의 실상을 은폐시키려는 意圖 外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왜구는 일본의 內部的 混亂을 틈탄 海賊集團으로 인근국가에 대한 掠奪을 통해 經濟的 利益을 추구하는 도적무리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3. 朝鮮의 外交와 文化

朝鮮王朝는 麗末의 諸矛盾을 克服하면서 自主外交와 國土開拓, 그리고 民族文化의 정리를 위해 不斷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對外關係에 있어서는 中國 明에 대해 形式的 事大의 禮를 行하고 그 외 민족에 대해서는 交隣關係를 취해 그들의 經濟·文化發達에 큰 기여를 하였던

26) 江口朴郎, 1979. 《改訂世界史》

27) 田中正義, 1979. 《改訂世界史》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世界史 教科書는 조선의 對中國關係를 〈服屬關係〉 또는 중국을 〈宗主國〉으로 삼았다는 斷定的인 표현을 써서 마치 韓國史가 中國에 의해 좌우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李成柱가 반도의 支配者가 되자 國名을 朝鮮이라 정하고 수도를 漢陽에 정하며 宗主國을 明으로 정하였다.²⁸⁾

이러한 敘述態度는 高麗가 宋·遼·金·元에 服屬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胡亂後 淸을 宗主國으로 삼았다고 하는 記述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한국사의 展開가 외세에 의해 他律的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日帝 官學者의 認識과 一致하는 것이다.

그리고 鮮初文化에 대해서는

조선은 明을 따라 官僚的 國家制度를 정비하고 朱子學을 公的 學問으로 삼았다. 평화의 再現으로 문화도 번영하였고 銅版印刷의 보급에 따라 다수의 서적이 刊行되었다. 또 朝鮮 固有의 文字로서 訓民正音が 만들어 졌다.²⁹⁾

와 같이 일단 中國의 影響을 전제하고 여러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표현은 다른 교과서에 보이는 〈新羅는 唐의 文化를 받아들여 번영하였다〉 〈발해는 唐의 文物을 채용하여 번영하였다〉 〈高麗도 唐의 制度를 채용했다〉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韓民族의 文化創造能力을 否認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文化란 한 민족의 힘만으로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民族의 文化라도 人접문화와의 交流속에서 成長하는 것이고 自己文化의 個性을 形成하는 것이다. 文化를 外國에서 들여왔다 해서 民族文化의 獨自性이 否定된다거나 그 文化傳統이 斷絶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文化가 外國文化를 收容하여 진일보한 樣相을 보일 때에는 그 消化過程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惹起되는 것이고 그러한 진통이 解消되는 과정에서 外來文化의 土着文化 化가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文化를 收容했다 해서 韓民族의 文化는 없고 中國文化의 延長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는 文化의 本質을 모르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4. 異民族과의 抗爭

16세기 말에 발생한 倭亂은 전후 7년간에 걸친 大戰役으로 한민족에게 커다란 苦痛을 안겨주

28) 三上次男, 1979. 《改訂新版世界史》

29) 林川堅太郎, 1979. 《詳說世界史(改訂版)》

었다. 이 戰亂은

오랫동안 戰亂에 휩싸여 있던 일본이 織田·豊臣氏 政權에 의하여 統一된 후 벌써 일본 국내에 새로운 矛盾이 고개를 들고 있었으며 그 모순을 解決하는 방법으로 對外觀心을 가지게 되었고 國內의 觀心을 밖으로 쏟게끔 한 對策이란 관점에서 豊臣秀吉의 한국침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³⁰⁾

와 같이 豊臣政權이 비록 戰國時代 混亂期를 수습했다곤 하지만 그 統一過程에서 나타난 제 모순을 해결할 필요성에서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고 實行에 옮겼던 것이다.

이렇게 侵略戰의 양상을 띤 倭亂에 對한 世界史 教科書의 일부는 사실대로 기술한 데 비해 日本史 教科書의 대부분은

秀吉은 明과의 國交와 貿易의 復活을 구하였다. 明에 從屬하던 朝鮮에 대한 入貢要求가 거부되자 明 征服의 방침을 굳히고 그 준비로서 1591년 軍船製造를 명하고 水夫를 징발하며 전국적인 호구조사를 행하고 다음해 조선에 出兵했다.³¹⁾

와 같은 표현을 써서 倭亂의 진실을 糊塗하고 있다.

일본의 對明貿易과 國交再開를 위한 朝鮮에의 仲介要請이 거절되어서 또는 조선의 入貢, 征明假道の 要求가 좌절되었다 해서 그들의 한반도 침략이 合理化되는 것은 아니다. 이 亂은 분명히 일본의 도발한 侵略戰이며 평화지향적인 한민족에게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試鍊이었다.

倭亂의 終熄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서가 〈明의 援軍, 秀吉의 病死〉로 기술하여 그들 軍隊의 撤收를 나타내고 있고 舉皆의 경우에는 朝鮮水軍과 義兵의 활약상을 서술해 그들의 敗退經緯를 말하고 있다.

우세한 朝鮮水軍과 明의 援軍, 朝鮮民衆의 조직적 저항때문에 戰局은 일본에 不利하였고 다음에 秀吉이 죽자 撤退치 않을 수 없었다.³²⁾

이 亂은 朝鮮, 日本 그리고 明까지 참여하는 國際戰이었기 때문에 전후 東北亞細亞의 歷史發展에 끼친 영향은 매우 深大한 것이었다. 조선사회의 內的 變質은 물론이려니와 大陸에서의 明·淸交替, 日本의 德川政權 登場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活字, 陶磁器, 書籍, 文化財의 약탈과 性理學의 收容으로 그들 中世文化 發展에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日本史 教科書의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30) 加藤章, 1976. 〈日本史教育에 있어서의 韓國史〉《歷史教育》20

31) 安田元久, 1979. 《高等日本史(最新版)》

32) 安田元久, 1979. 《新日本史(初訂版)》

한편 17세기의 胡亂에 대해서는 世界史 教科書만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 서술내용은 앞서의 경우처럼 外勢의 支配를 강조하고자 하는 傾向이 농후하다.

17세기에는 淸軍의 침입을 받았고 江華島가 점령되자 항복하여 淸의 屬國이 되었다.³³⁾

왜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불어닥친 滿州族의 침입은 한민족의 傳統的인 自主性에 일대 치욕감을 안겨주긴 했지만 그 후 朝野의 人心은 北伐論으로 歸一되어 갔다. 비록 이 征淸北伐 運動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淸의 요청에 따른 黑龍江 流域의 러시아세력 격파시에 그 實現 可能性을 엿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韓民族의 自主性 回復을 위한 不斷한 努力은 기술하지 않고 皮相인 結果만 가지고 云謂한다면 그 서술의 결과는 自明해지고 만다. 즉 한민족은 外勢에 억압되고 自己保存을 위한 鬪爭도 없는 無氣力한 백성이라는 사실 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5. 期鮮後期の 새경향

朝鮮社會는 日本·滿州族의 침입을 거치면서 鮮初에 수립해 놓은 諸般 既存秩序가 해체되고 그에 代替되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展開된 것으로 새시대를 향하는 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다수의 日本史·世界史 教科書는 朝鮮後期の 새로운 樣相을 看過하고 倭亂에 대한 설명 이후 곧 조선의 門戶開放으로 筆致를 옮기는데 이는 한민족의 發展的 性向을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일부의 世界史 教科書만이 이 時期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18세기에 貨幣經濟가 발달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封建支配의 矛盾을 지적하는 實學이 발달하고 농촌에는 초등교육기관인 書堂이 보급되었다. 한글로 小說이 쓰여졌고 농촌출신의 知識人도 나타났다.³⁴⁾

이러한 서술경향은 한국사의 內在的 發展을 살피는데 좋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世界史 教科書에서는 조선말기의 民亂과 外勢의 接近, 그리고 大院君의 登場에 관해 言及함으로써 開港 以前의 朝鮮事情을 이해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19세기에는 平安道の 洪景來亂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民衆反亂이 있었고 또 歐美列強의 艦船도

33) 吉岡力, 1979. 《高校世界史(再訂版)》

34) 吉田悟郎, 《前掲書》

冠海에 출몰하게 되었다. 1863년 幼少한 高宗이 즉위하자 그 實父 大院君이 실권을 잡고 서트운 人材를 登用하고 兩班政治의 수정으로써 李朝의 支配體制를 재건하고자 했다. 大院君은 국내의 크리스티교를 탄압하는 한편 江華島 一帶에 침입한 美艦隊와 佛艦隊를 격퇴하고 領國體制를 강화했다.³⁵⁾

Ⅳ 近代史에 關한 敘述

開港以後 朝鮮사회는 大試練期에 접어든다. 이는 東洋的 秩序 속에 安住하던 朝鮮사회가 國際的 葛藤속에 휘말려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반도에 접근했던 세력은 日帝와 歐美列強으로써 단순한 領土野慾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的인 經濟侵透까지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既存의 傳統의 思想과 社會體制는 심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民族的 危機를 극복하기 위해 強烈한 主体意識을 기반으로 한 排外意識이 싹트게 되고 外來 先進文物을 收容하여 富國強兵을 도모하는 근대지향적인 제반 노력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漸進되는 周邊 列強들의 政治·經濟的 侵透는 이러한 한민족의 시련극복 노력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후의 韓國史 展開는 國權回復과 民族生存이라는 對外民族 抗爭史로 變形되게 된다.

그러나 日本史·世界史 教科書에 나타난 이 時期의 敘述을 보면 이제까지의 서술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樣相으로 記述되고 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韓民族을 主体로 하여 韓國史의 個個의 사실들이 설명되어 왔었는데 이 時期 以後부터는 日帝가 主体가 되고 韓國史는 客體로 轉落되는 日帝의 韓半島 侵略史로 變調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의 生動的인 제반 움직임은 거의 放棄되다시피 되어 있다.

1. 開港과 政界動向

조선왕조의 門戶開放은 雲揚號事件을 계기로 이루어 진다. 이 事件은 日本史·世界史 教科書가 거의 認定하듯이 일본의 군함 雲揚號가 韓國 領海에 대한 不法的인 침입을 감행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以後 日帝의 한반도 진출에 중요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日本史 教科書는

江華島事件이란 조선의 江華島 부근에서 일본 군함이 朝鮮側으로부터 砲擊된 사건이다. 朝鮮은 일본의 武力에 놀려 釜山, 그 밖의 두개의 항구를 열고 일본의 治外法權을 인정했다.³⁶⁾

35) 鈴木智夫, 1979. 《高校世界史》

36) 安田元久, 《前掲書》

라고 표현하여 운양호사건의 책임이 마치 朝鮮王朝에 있는 것처럼 記述하고 있다. 실제 江華島는 丙寅·辛未洋擾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洋擾以後 어떤 외국 함선도 근접할 수 없었다.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함 雲揚號는 불법적인 江華島 沿岸 探索과 군사기지인 草芝嶺에의 접근을 피해 강화포대로부터의 砲擊을 意識적으로 惹起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事件의 背景도 설명하지 않고 단순한 結果만 가지고 그들에 유리하게 서술한다면 그 서술태도는 일단 疑心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위의 引用文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거의 모든 日本史·世界史 教科書가 이때의 條約內容을 간략하게나마 記錄하고 있다. 그 중 어떤 교과서는 朝鮮을 獨立國으로 認定한다는 내용까지 곁들여, 朝鮮이 淸을 宗主國으로 삼았다는 그들의 對韓國史 認識을 재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해에는 兩國 間에 日·朝修好條規가 맺어졌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朝鮮을 獨立國으로 보고 또 釜山과 두개의 항구를 開港케 하고 일본인의 治外法權을 인정하였기에 일본의 對朝鮮貿易은 현저히 늘어났다.³⁷⁾

개항 이후 조선사회는 外部勢力의 政治·經濟的 進出에 따른 많은 陣痛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陣痛은 異質의인 外來文物을 收容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必然的인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당시 政界는 이와같은 外來文物의 衝擊을 緩和·吸收하는 과정에서 두 갈래의 입장 즉 漸進勢力(保守系列)과 急進勢力(開化系列)으로 나뉘게 된다.

그런데 모든 日本史·世界史 教科書는 한반도를 둘러싼 淸·日의 對立 結果 나타난 정치적 현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그 중 일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日·朝修好條規의 締結에 의하여 일본은 經濟的, 政治的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強化했다. 이에 대하여 淸國은 조선에 대한 宗主權을 주장하여 同國을 屬國으로 취급하였기에 朝鮮을 둘러싸고 日·淸 兩國은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 국내에는 淸國에 의지코자 하는 事大黨과 일본의 近代化를 본삼아 國政을 개혁코자 하는 獨立黨이 서로 대립하여 다투었다.³⁸⁾

와 같이 朝鮮을 屬國視하고 宗主權을 주장하는 淸側과 朝鮮에 대한 溫淸的 立場을 가진 日側과의 대립으로 國內 政界가 分裂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한국사가 한민족의 自主的인 力量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外세에 의해 他律的으로 展開된다는 日帝 官學者의 立場과 같은 것이다.

37) 中屋健一, 1979. 《世界史(三訂版)》

38) 竹內理三, 1979. 《精讀日本史》

2. 抗日救國運動의 展開

1894년부터 전개되는 東學革命은 韓國史上 最大의 農民蜂起이며 排外運動이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革命運動은 對內的으로는 支配層의 虐政으로 인한 民生破綻과 對外的으로는 近代 帝國主義列強의 한반도 침투라는 時代的 狀況下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 狀況下에서 발생한 東學革命에 관해 일부 교과서들은 單純한 〈東學黨의 亂〉으로 規定하여 마치 對內的인 거와 같이 표현하고 있고, 대다수의 교과서들은 淸·日戰爭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 무렵 조선에서는 政府·地方官吏의 虐政과 일본을 비롯한 外勢의 侵入에 반대하여 농민들이 武器를 들고 일어났다. ……농민반란은 東學의 組織과 결부되어 조선 남부에서 정부군과 격렬한 전쟁상태에 들어가 1894년 6월초 조선정부는 淸國에 出兵을 의뢰했다.³⁹⁾

동학혁명의 여파로 惹起된 淸·日戰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일·淸 양국은 일찍부터 朝鮮問題를 둘러싸고 대립해 오다 1894년 조선에 農民戰爭의 亂이 발생함을 계기로 日·淸戰爭이 일어났고…下關條約이 맺어졌다. 이에 의하여 일본은 朝鮮을 淸의 從屬에서 떼어놓고…⁴⁰⁾

와 같이 日本이 朝鮮을 淸을 從屬關係에서 獨立시켰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日帝가 마치 한민족을 위해 代理戰爭이나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雲揚號事件을 계기로 朝鮮을 獨立國으로 인정했다는 記述과 동일한 것으로 그들의 한반도 침략 야욕을 은폐하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 노골화됨에 따라 韓半島 各處에서는 抗日救國鬪爭이 激烈하게 전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가 외면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교과서만이 日帝의 정치적 간섭에 따른 義兵活動만을 간단히 기술하고 있고 어떤 교과서는 義兵活動 以外에 愛國啓蒙運動까지言及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와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반대하여 武器를 잡고 싸우는 義兵鬪爭과 言論·出版·教育 등의 활동을 통해 愛國精神을 키우는 愛國文化啓蒙運動이 일어났다. 韓國 全土에서 전개된 이러한 운동은 한국인의 民族的 紐帶感을 굳혀 주었다.⁴¹⁾

39) 門脇禎二, 1979. 《高校日本史》

40) 土井正興, 1979. 《新世界史(三訂版)》

41) 門脇禎二, 《前掲書》

이러한 내용서술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韓民族의 對應態度를 살피는데 좋은 보탬이 될 것이다.

3. 日帝下의 獨立鬭爭

일제하에서의 韓民族은 오랜 歷史와 높은 文化의 歷史的 體驗을 바탕으로 國權回復을 위한 諸般 鬭爭을 실시 없이 전개하였고 그 鬭爭은 한국사상 처음맞는 民族生存의 問題였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日本 教科書 내용을 通觀해 보면 그들의 植民地 支配樣式만 서술하고 있고 韓民族의 獨立鬭爭에 관해서는 거의 言及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일본사 교과서와 반수 가량의 세계사 교과서만이 3·1運動에 관해서 약간 기술하는 정도이다.

191년 3월1일 獨立萬歲를 외치는 大民族運動이 일어났다. 騷擾는 6個月 間 계속되고 약 200만명이 參加했으며 탄압에 의한 死者가 약 8천명이나 되었다. 이 후 植民地의 武官總督制를 완화하고 武斷政治를 수정했다.⁴¹⁾

실제 이 거족적인 抗日獨立運動은 日帝下에서 전개된 各種 秘密結社運動과 武裝獨立運動, 그리고 全民族 사이에 充滿된 抗日獨立思想이 合流되어 폭발된 것이었다. 그 외 한민족의 獨立活動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는 上海 臨時政府의 樹立과 小作·勞動爭議가 고작이며 이것도 아주 疎忽히 다루고 있다.

V 結 語

以上에서 日本의 現行 高校用 日本史·世界史 教科書에 나타난 韓國史 敘述傾向에 관해 살펴 보았다. 말하자면 日帝가 韓半島 侵略을 合理化하기 위해 꾸며낸 植民主義 韓國史觀이 이들 教科書에 어느 정도 投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 본 것이다.

各 教科書마다 그 敘述內容과 表現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對外關係史와 관련지어 韓國史의 계반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고 韓民族의 內在的 發展 樣態에 대해서는 거의 外面하고 있는 實情이다. 즉 韓國史의 展開는 韓民族의 自主的力量에 의해 自律的으로 推進되었다기 보다는 外勢의 간섭과 強要에 의해 他律的으로 進行되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國의 歷史는 北方의 中國, 蒙古, 滿州와 南方의 日本이라는 強大國 속에서 非主体的으로 展開되어 왔다

42) 小葉田淳, 1979. 《日本史(新訂版)》

는 것이다. 따라서 韓民族에게는 獨創的인 文化가 存在할 수 없고 오직 模倣文化만 存在할 뿐이며 大陸文化의 傳播機能 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叙述內容은 日帝가 韓半島를 侵略하고 韓民族을 統治하기 위해 造作한 植民主義 史觀과 一致하는 것으로 戰後 日本 歷史學界의 對韓國史 認識이 日帝時와 다른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Summary --

The Study Attitude of Korean History in Japan

— Centering around the text books on Japanese History
and World History in high school of Japan —

In-hyeok Kwon

The history of Korea is described as follows by the text books on Japanese History and World History in high school of Japan ; Korea has entrusted itself to the care of other countries yielding under their invasion and pressure.

Therefore, Korea doesn't have any original culture except imitated one. And Korea has just played a simple role of intermediary to deliver the continental culture of China to Japan.

A groundless theory like this is to be in accord with the made-up history of Korea propagandized in the past by Japan through their domination of Korea. In this context, even today the academic world of history in Japan must be in misunderstanding of the real history of Korea as much as they were in the past period of their Imperialism.